

총명한 리더십에 남다른 기지, 통찰력까지

‘토끼띠 CEO’, 위기 속 기업 도약 위해 뚝다



‘흑토끼해’
재계 토끼띠
리더



손경식
CJ그룹 회장



강병중
넥센타이어 회장



구본준
LX그룹 회장



권오갑
현대중공업 회장



서정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



박정호
SK하이닉스 부회장



최재원
SK온 수석부회장



경계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
DS부문장



이정애
LG생활건강 사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박세창
금호산업 사장



김남호
DB그룹 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대표이사 회장



노종원
SK하이닉스 사장

/각 사. 유토이미지

계묘년 토끼띠 리더

2023년 계묘년(癸卯年), ‘검은 토끼의 해’가 밝았다.

토끼띠는 성격이 온순하며 자애로운 성격으로 총명한 리더십과 강한 의지를 지녔으며 지혜롭다고 꼽히는 동물로 ‘만물의 성장과 번창’을 의미한다. 또 통찰력은 물론 자신감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토끼띠는 1939년생, 1951년생, 1963년생, 1975년생 등으로, 경기침체 상황에 놓인 계묘년을 맞아 기업의 도약을 이끌게 될, 재계에 토끼띠 CEO가 누가 있는 지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500대 기업 중 토끼띠 CEO는 총 67명으로, 1939년생이 2명, 1951년생은 4명, 1963년생은 56명, 1975년생은 5명이 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토끼띠 CEO들은 2023년에도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 총명한 리더십으로 회사를 이끌고 토끼 같은 기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1939년 토끼띠인 손경식 CJ그룹 회장은 CJ제일제당 대표이사 회장을 겸하고 있다. 한일은행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해 1993년 제일제당이 삼성그룹에서 분리할 때 제일제당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계열 분리를 주도했다. 1995년 제일제당 회장에 올랐으며 2002년 CJ로 회사 사명을 변경한 데 이어 2005년까지 경영 일선에서 일했다. 손 회장은 2018년부터 한국경영자총협회장(경총 회장)을 맡아 3번째로 연임 중인데, 기업인들을 대변해 최저임금 등 경제 사안에 대해 가장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역시 1939년생인 강병중 넥센타이어 회장은 28세의 나이로 일본 중고화물차 수입을 시작, 화물운수회사 옥정산업을 설립하며 경영 일선에 뛰어들었다. 이후 운수업에서 가장 비중이 큰 소모품이 타이어나는 점에 착안해 1973년 재

스타이어를 생산하는 흥아타이어공업을 설립했다. IMF 시절 자동차용 타이어나 생산하는 우성타이어(현 넥센타이어)를 인수해 부채 비율이 6000%에 육박하던 회사를 100%대의 우량기업으로 변모시키는 수완을 발휘했다.

토끼띠, 만물의 성장·번창 의미 500대 기업 중 CEO 총 67명 1939년생 손경식·강병중 만형

1951년생인 구본준 LX그룹 회장은 고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의 셋째 아들이자 구본무 회장의 동생이다. 그는 LX홀딩스 대표도 맡고 있으며, LG상사 대표이사 부회장, LG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등을 거쳤다. 하지만 2018년 구본무 회장이 별세하고 장자 승계 원칙에 따라 아들인 구광모 회장이 총수에 오르자 LG고문으로 물러났다. 그러나 그는 2021년 LG상사, LG하우시스 등 5개 계열사를 LG그룹에서 계열을 분리해 LX그룹을 세우면서 다시 회장 자리에 올라 그룹 안팎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역시 1951년생인 권오갑 현대중공업 회장은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때부터 일하기 시작해, 현대중공업이 곁을 마를 때던 시절부터 1위 조선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함께 한 인물이다. 현대중공업에 입사해 런던사무소 외자유매부 부장, 서울사무소 전무를 거쳐 현대중공업 부사장과 울산현대호랑이축구단 대표를 지냈다. 현대중공업이 아부다비 국제석유투자회사로부터 현대오일뱅크를 인수하면서 현대오일뱅크 사장을 지내기도 했다. 권 회장은 지난 3월 지주회사명을 ‘현대중공업지주’에서 ‘HD현대’로 변경했고 50주년 비전선포식에서 이를 공식화했다.

서정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 겸 아모레퍼시픽 대표는 서성한 태평양창업주의 차남으로 1963년생 토끼띠다. 1987년 아모레퍼시픽의 전신인 태평양화학에 입사한 후 2013년 그룹 회장을 맡았다. ‘서정배 신화’로 잘 알려져 있는데, 2019년 창립 후 처음 아모레퍼시픽그룹 해외 매출 2조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냈다.

박정호 SK하이닉스 부회장은 1963년생으로, 1989년 선경(SK네트웍스)에 입사하며 SK그룹에 합류했다. SKC&C, SK브로드밴드 대표이사 사장 등을 거쳐 현재는 SK하이닉스 대표이사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박 부회장은 SK하이닉스를 반도체 1위 기업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공격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1963년생인 최재원 SK온 수석부회장은 SK그룹 수석 부회장을 겸하고 있으며,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생이다. SKC 경영지원본부 본부장, SK텔레콤 전략지원본부장과 부사장, SKE&S 대표이사 부회장을 거쳤다. 그는 SK그룹의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초기부터 주도해왔으며 2021년부터 SK온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최준영 기아자동차 부사장은 1963년생으로 2018년부터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1990년 현대자동차로 입사했고, 2009년에는 기아자동차(현 기아) 광주지원실장 이사대우로 임원 반열에 올랐다. 이후 기아차 광주총무안전실장 이사과 노무지원사업부장상무, 경영지원본부장 전무 등을 거쳐 대표이사 자리에 올랐다. 최 부사장은 그룹 내 노무관리 전문가를 꼽히고 있으며, 고질적인 노사갈등 리스트 해소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동안 현실적인 타협점을 이끌어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정애 LG생활건강 사장도 1963년생으로 토끼띠다. 1986년 LG생활건강에 입사했으며 2011년 생활용품 사업부

장을 거쳐 2015년 럭셔리 화장품 사업 부장 자리에 올랐고 2018년에는 리프레시먼트(음료) 부분 사업부장에 올랐다. 이달 1일 취임한 이 사장은 그동안 시장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면서 회사를 성장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사장은 내년에 LG생활건강 내질 다지기에 주력할 계획인데, 재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해야 하는 임무를 띄고 있다.

경계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 DS부문장은 1963년생으로 토끼띠 경영인이다. 2020년 삼성전자 대표이사를 거쳐 2022년부터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 겸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을 맡았으며 지난 12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승진 이후 처음 단행한 사장단 인사에서 대표이사직을 유지했다. 경 사장은 반도체 설계 전문가로 메모리 반도체 개발을 주도해왔다.

63년생 권오갑·서정배·박정호 토끼띠 여성 CEO 이정애 주목 75년생 조원태·김남호·최윤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고 조양호 전 회장의 장남으로 1975년생으로, 대한항공 대표이사도 맡고 있다. 한진정보통신에 입사한 후 대한항공으로 자리를 옮겨 10년 만에 부사장으로 초고속 승진했다. 그 후 한진그룹 IT 계열사인 유니커버스 대표로 선임되며 경영 일선에 나섰다. 2016년 대한항공 대표에 오른 데 이어 2019년 한진그룹 회장에 취임하면서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 대표를 겸직했다. 대한항공의 전통적 조직문화를 젊고 혁신적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권위적 오퍼 이미지를 벗으면서 한진그룹에 새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박세창 금호산업 사장도 1975년생으로 박삼구 전 금호그룹 회장의 장남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사장, 아시아나IDT 사장 등을 거친 후 2021년부터 금호산업 사장을 맡고 있다.

1975년생인 김남호 DB그룹 회장은 경영컨설팅 회사인 AT커니에서 컨설턴트로 근무하다 2009년부터 그룹 경영에 참여해왔다. 그는 동부제철 아산관리리팀으로 입사했으며, 인사팀과 도교지사를 거쳐 동부판한농(현 판한농)에서 근무했다. 2015년 4월에는 DB그룹 금융 부분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고 있는 동부금융연구소(현 DB금융연구소)로 옮겨 상무를 거쳐 부사장 자리에 앉았다. 2020년 7월에야 아버지인 창업주 김준기 전 회장의 뒤를 이어 회장 자리에 올랐다. 김 회장이 DB그룹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할 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윤범 고려아연 대표이사 회장도 1975년생으로 토끼띠이다. 최 회장은 2007년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경영지원 본부장으로 부임하면서 회사 생활을 시작했다. 2014년에는 고려아연의 호주 자회사인 SMC(선메탈) 사장을 맡아 기술 개발과 공정 개선에 주력하면서 안정적인 적자 구조를 탈출시키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노종원 SK하이닉스 사장은 1975년생으로 2003년 SK텔레콤에 입사했다. SK하이닉스 사업 총괄을 지냈으며 이후 SK하이닉스 경영지원 담당 부사장을 맡았다. 이번 인사에서 노 사장은 SK하이닉스에서 사업 담당 임원 업무를 내려놓고, 솔리다임 최고사업책임자(CBO) 역할에 집중하도록 했다. 낸드플래시 업황이 악화된 데다 솔리다임이 인텔로부터 독립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회성 비용에 적자 폭이 확대되는 상황이며, 솔리다임의 올해 3분기 기준 누적 순손실은 8717억원에 달해 그가 져야 하는 책임은 크기만 하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oul.co.kr